



피고석의 하나님

C.S. 루이스 지음 | 송태원 옮김 | 홍성사 펴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본서 제2부에 나오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사실 책의 원래 제목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퍼가 이를 ‘피고석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C.S. 루이스(1898~1963)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다. 제임스 패커는 그를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렀으며, 폴린 튜리에는 ‘20세기 존 번연이라 명명한 바 있다. 루이스의 글을 읽고서 험난한 신앙 여정에서 도움 받았음을 고백한 현대 크리스천 저술가들도 적지 않다. 1958년 미국 장로교 신교사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선교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C.S. 루이스라고 답하기도 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후일 이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는 전혀 상상 못한 것 같다. 변호사인 친구가 저서의 로열티를 사후 어떻게 배분할 생각이라고 묻자, 그 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죽고 5년쯤 지나면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50년이 흘렀어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다.

특히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화되면서 한국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2005년 〈나니아 연대기1: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시작으로, 〈나니아 연대기2: 캐스피언 왕자〉(2008)와 〈나니아 연대기3: 새벽 출정 호의 항해〉(2010)가 잇달아 개봉되었다. 시리즈 4로는 〈마법사의 조카〉가 2014년 개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루이스는 “나의 내무에는 기독교 변증가, 문학평론가, 그리고 작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가로서의 나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나니아 연대기』 외에도 『순례자의 귀향』,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우주 소설 3부작 (Space Trilogy)』 등을 집필하였다. 한편 그는 기독교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신학과 학문의 통합’에 가장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 학자이기도 하다. 작가이자 변증가인 루이스의 큰 영향력은 그의 지적 혹은 영적인 독특한 이력에도 관련된다. 그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찾아 헤메는 방황을 겪었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의 시도라 불리까지 한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작품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솔직하게 담았던 ‘영적 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루이스는 회심한 바로 그 해부터 기독교 신앙의 진도자가 되길 원해, 기독교 작가이자 평신도 신학자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단히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이면서도 단순하고 담백한 문체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또한 특정 교파의 교리 혹은 한 개인의 신학관보다는 순전한 기독교를 강조했다. 이는 각기 다른 전통의 다양한 교파나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기독교를 가리킨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루었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피고석의 하나님』(God in the Dock)은 루이스의 글 모음집으로, 월터 후퍼가 오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다양한 간행물과 신문을 뒤지며 재발굴해 편집했다. 그는 루이스 말년에 개인 비서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루이스 연구가라 할 수 있다. 33세의 나이로 회심한 루이스는 신앙에 대한 강연이나 글 요청을 거의 절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말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모음집은 다양한 청중만큼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후퍼는 24년에 걸친 발표문과 기고문을 비롯해 편지글, 그리고 인터넷 내용 등의 글을 루이스의 옥저처럼 전한다. 독자들에게 루이스를 좀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본서의 1부는 명확하게 신학적인 내용의 에세이를, 2부는 반(半)신학적인 글, 3부는 윤리문제를 다룬 글, 4부에서는 신학과 윤리 문제로 신문과 잡지에 투고한 루이스의 편지들을 실고 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본서 제2부에 나오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사실 책의 원래 제목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퍼가 이를 ‘피고석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현대인에게 죄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설교의 청중들은 유대인이건 이교도이건 죄책감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福音)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도 못한다. 때문에 우선 그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진단을 내려줘야, 치료 소식을 받기리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기뻐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나아갔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엔 오히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전쟁이나 가난, 질병을 허용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죄리 있게 항변(?)하면 사람인 우리가 귀 기울이며 판단한다는 얘기도. 또한 복음을 듣는 이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가령 자만, 원한, 질투, 비겁함, 비열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자신이 부당한 운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거나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

루이스는 1942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에 참여하였다. 이 모임은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로 논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옥스퍼드 대학 당국이 설립한 것이었다. 한 주는 기독교인이 논문을 발표할 뒤에 대해 불신자가 답변하고, 그 다음 주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의 논문 발표 후 기독교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루이스는 이 모임에서 불법 회장과 지도교수 자격으로 참여했고, 자신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간 1954년까지 모임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가 지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옥스퍼드 대학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석의 하나님』에는 이와 관련된 글들도 실고 있다. ‘소크라테스클럽의 설립’

은 이 클럽의 기관지인 《Socratic Digest》 창간호에 실린 루이스의 머리글이다. 그리고 뒤이어 실려 있는 〈교리 없는 종교〉는 루이스가 1946년에 이 모임에서 발표한 글을 후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서는 딱딱한 이론만을 담은 책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실제적인 충고다. 어느 신우회와 가진 만남에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자신이 부당

한 운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거나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 사별, 질병, 가정불화, 노동 조건,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적 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행운, 건강, 인기를 비롯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의미의 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과 마찬가지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졌으므로 인생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선을 돌릴 마음이 나지 않으니,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텅텅 행부에 안주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부’들을 우리에게서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오르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쉽다기 어려운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곳을 혼련과 교정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곳이 아닙니다.”



송대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에서 상상력이론을 공부하고 《침례의 무림의 문예비평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저서로는 ‘먼저, 불신자 루이스, 불림의 회상 세계와 기독교’, ‘이미지와 상징’,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대학 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연구회 문화예술포럼장으로 섬기고 있다.